



CONTENTS

- 2 • 5월의 활동
 - 영풍석포제련소 관련 기사 연재 안내
 - 2024년 5월 결산
- 3 • 생태탐방 2
 - 영양 '멸종위기종 복원 센터와 머루산을 다녀와서'
- 4 • 목요캠페인
 - 환경문답
- 5 • 야생화 소모임 제안
 - 마음에 남는 글
- 6 • 쉼터
 - 알림
 - 후원 현황

생태탐방 2 영양 '멸종위기종복원센터'와 포산 일대 (2024. 5. 25.)



2024. 5. 16.

정부는 세종보를

지난 2018년부터 개방 상태로 유지하고, 2021년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철거를 결정했으나 2024년 6월 초 다시 가동하려 하고 있습니다.

4대강 보 개방의 마지막 교두보인 세종보가 닫힌다면 이대로 고착화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4월 30일부터 천막농성을 시작한 금강동지에게 연대의 힘을 드리고 왔습니다.

- 발행일 2024. 05. 31.
- 발행처 사단법인 안동환경운동연합 안동시 안기천로 45 1층 054-843-9333 andong@kfem.or.kr
- 편집위원 조석옥 김아름 서옥림 이재각
- 홈페이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안동환경운동연합' 검색

【2024년 5월의 활동】

- 5/1 집행위원회의 18:30 사무실
- 5/8 환경보건월례회의 10:00 온라인
- 5/9 전국사무국처장단회의 14:00 서울 참여연대 2층
- 5/14 석포워크숍 준비회의 13:30 온라인
- 5/16 금강 농성장의 낙동강네트워크 지지 및 연대 기자회견, 13:00 금강 천막농성장
- 5/25 2024 생태탐방 2, 09:00 출발, 영양 멸종위기종복원센터와 포산마을 일대
- 5/27 편집위원회의 11:00 사무실
- 5/29 제련소 탐방 10:00 석포 일대
- 5/31 4대강사업 반대 소신공양 문수스님 14주기 추모제, 11:00 군위 지보사 문수스님 부도탑 앞
- 5/2, 5/9, 5/16, 5/23, 5/30(103회~107회차)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퇴근시간 캠페인, 매주 목 17:00 신시장 네거리

【영풍석포제련소 관련 기사 연재】

안동환경운동연합이 보는 영풍석포제련소 문제를 정리하는 글을 연재하고 있다.

기사 작성: 안동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서옥림, 연재 신문: 오마이뉴스

1. 5/2 낙동강 최상류에 자리 잡은 공해공장, 어쩌다 이런 일이(입지 문제)
2. 5/20 죽어가는 소나무·다슬기, 병든 메기 다음은...(환경오염 양상과 영향)

이후 제련소와 사람들, 정부나 정치 역할 변화, 장항제련소와 석포제련소 등에 대해 5~6편 정도 더 연재할 예정이다.

【2024년 5월 결산】

□ 수입

구분	산출 근거	금액(원)
회원회비		2,658,355
일시후원		1,020,000
기타수입(생태탐방)	생태탐방 회비	195,000
기타	사회보험 과오납분 환급	33,680
계		3,907,035

□ 지출

항목	비 목	산출 내역	금액 (단위:원)
운영비	인건비	급여(사무국장)	992,130
		사회보험	9,480
		퇴직적립	90,000
	관리	사무실 월 임대료	310,000
		공과금	인터넷,전기,전화 55,910
	유지비	지급수수료	회계사 위탁 비용, MRM 비용, 금융결재원, 관리접수료 155,000
		소모품 및 사무용품	224,000
	수선 총당금(수선 및 기타)	이동식 엠프 수리 40,000	
	지역분담금	12월 × 75,000 75,671	
	소 계		1,952,191
사업비	국토생태	모니터링비 1,002,400 활동비 556,900 1,559,300	
	탈핵에너지기후변화		
	생활환경		
	환경교육		
	조직 및 정책	시민연대, 낙동강네트워크 분담금, 금강 연대후원금 350,000	
	미디어홍보		
	회원 및 모금	활동비(생태탐방) 385,760 기타운영비 141,050 526,810	
소 계		2,436,110	
총계	총 계		4,388,301

영양 멸종위기종복원센터와 머루산 숲길을 다녀와서

김가형 회원



작년에 안동환경운동연합에 가입하고, 처음으로 생태탐방을 다녀왔다. 아침에 모여서 각자 소개를 주고받은 후 영양으로 향했다. 차는 임동에 있는 경북독립운동기념관을 지나 소박한 시골길을 달리더니 어느새 영양에 도착했다. 흐린 날씨에 풍경이 더 운치 있었다. 주변에는 커다란 바위가 안동과는 다른 위용을 드러냈다. 이곳은 선바위라고도 불리는 입암면이다.

먼저 유유당이라는 한옥 펜션에 차가 멈췄다. 새로 지은 한옥 옆으로 양귀비, 수레국화가 흐드러지게 피어 있는 정원이 나왔다. 여기저기서 감탄이 쏟아졌다. 누군가 ‘타사의 정원’에 온 것 같다고 말했다. 정원 앞에는 초록빛 밀밭이 시원하게 펼쳐져 있었다. 클레마티스와 양귀비 꽃잎이 어찌나 크던지 사장님께 이유를 물어봤다. 탄성을 지르며 구경하는 우리를 사장님이 이끌더니 비닐하우스에서 17개의 목화 화분을 나눠 주셨다. 예상치 못한 선물을 받으니, 기분이 좋았다. 우리 회원

이신 사장님도 함께 차에 타고 다음 코스로 이동했다.

어느새 해가 짙었다. ‘멸종위기종복원센터’는 우주 어디쯤 위치한 건물 같았다. SF영화에서나 볼 것 같은 투명한 돔이 제일 먼저 눈에 들어왔다. 차를 타고 이동하며 조류 박사님의 설명을 들었다. 첫 번째로 본 참수리는 우람한 날개에 비해 좁은 우리에 두 마리가 멀뚱히 앉아 있었다. 미국 관련 상지에서 많이 쓰이는 독수리가 영양 산골 속 자그마한 우리에 있는 게 생뚱맞아 보였다. 물론 우리 경찰 마크에도 참수리가 있다. 부산 경성대에서 관리하다 아파트 주민의 민원으로 영양까지 오게 되었고, 금실이 좋으며, 수컷은 하늘을 날아 먹이를 물어 와야 하기에 암컷보다 체격이 작다는 설명이 이어졌다. ‘하늘을 호령하던 참수리도 민원을 피해 영양 산골에 와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변한 시대에 적응해야 하는 건 인간만이 아니라는 생각을 했다. 두 번째로 본 양비둘기는 도심 공원에서 흉물로 변한 집비둘기보다 더 차분한 회색빛 털을 지니고 있었다. 기독교 영화에서 본 것처럼 입에 올리브 잎을 물고 좋은 소식을 날라다 줄 것 같았다. 순하다는 뜻에서 양비둘기라고 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하셨다. 아이러니하게도 양비둘기는 멸종위기종이지만 일반 비둘기인 집비둘기가 환경을 더럽혀서 생김새가 비슷한 양비둘기도 도심에서 눈치밥을 먹는다고 했다. 처음 본 양비둘기도 신기하고, 천덕꾸러기 취급받는 일반 비둘기가 연구 대상으로 대접받는 것도 생경했다. 세 번째로 본 저어새는 우주비행사 훈련 장소 같은 커다란 돔 속에서 날아다니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사무실에 가서 포유류 박사님의 짧은 강연을 들었다. 어린 시절에 야생동물을 구조하는 일을 해보고 싶다고 잠시 생각한 적이 있었다. 사무실 문 앞에 걸린 구조대원 명패와 벽면에 멸종위기 야생동물 포스터를 보며 이들의 일터에 왔다는 게 실감이 나서 잠깐 흥분되었다. 마치 드라마 세트장 같았다. 강의를 통해 우리나라에도 울진과 삼척 지역에 산양이 살고 있다는 것과 센터에서 산양을 어떻게 보호하고 모니터링을 하는지 배웠다. 멸종위기종 보존에 대한 회원들의 질문에 박사님은 생물 다양성은 국가의 재산이며 멸종위기종보다 더 높은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하며 젠가에 비유해서 설명해 주었다.

영양 맛집인 감로식당에는 포산마을 이장님이 먼저 나와 계셨다. 식사 후 이장님은 자신의 하얀 트럭으로 마을 꼭대기 정자까지 우리를 태워 주셨다. 날이 더워 산꼭대기까지 걸어가지 못하고, 우리는 정상에서 내려오기로 했다. 트럭 뒤에 타고 포산마을로 올라간 것이 내게는 이번 탐방의 하이라이트였다. 산에 올라가며 펼쳐지는 시원한 녹색 풍경은 장관이었고 바람 소리와 함께 우렁차고 감미로운 노랫소리가 귓가를 스쳐 갔다. 나중에 알고 보니 노동운동가인 김현주 님의 노래였다. 우거진 나무 수풀이 끝나자 건강한 고랭지 배추들이 줄지어 선 들판이 양옆으로 이어졌다. 분명 산꼭대기로 올라왔는데 또다시 마을이 있었다. 마을 위 산꼭대기에서 내려다본 풍경은 비현실적으로 아름다웠다. 눈 아래 펼쳐진 마을과 저 위에 일렁이는 파도처럼 굽이굽이 수목화 같은 산등성이들, 오른쪽 한편에서 돌고 있는 하얀 풍력발전기까지. 앞에 보이는 산이 일월산이라고 했다. 이곳은 구한말 의병장 신돌석 장군이 부하를 이끌고 다니던 길이다. 올 초에 신돌석 전기를 읽었기에 나는 이 장소가 더 와 닿았다. 그 아래에는 석주 이상룡 선생의 동생인 이상동 선생이 사셨던 집도 있었다. 아쉽게도 건물은 없고, 검은 비닐로 골을 낸 농지만 남아 있었다. 기념 푯말이라도 하나 있었으면 좋으련만……. 인상이 너무나도 좋은 이장님이 마을에서 생산되는 피톤치드와 특산물(송고버섯 누룽지, 고랭지 배추, 고추죽)에 대해 이야기를 해주셨다. 마을 한가운데 위치한 연못(습지)에서는 가을에 음악회도 열린다고 했다. 이 마을은 습지도 가지고 있어서 관광 자원이 풍부했다. 아직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알려지고 나면 명소가 될 것 같았다.



우리는 다시 차를 타고 마을 어귀에 내려서 등산로를 따라 트레킹을 하며 산을 내려왔다. 데크길은 걷기에 무난했다. 중간쯤 이르자 천주교 성지가 나타났다. 하얀 성모 마리아상 뒤로 십자가에 매달린 깡마른 예수님, 그리고 빈 십자가 여러 개가 한 줄로 이어졌다. 기독교 박해를 피해 이곳에 온 사람들을 기념해서 만든 것이란다. 이곳은 박해를 피해 올

만큼 산세가 험하고 사람의 발길이 닿기 힘든 곳이었다. 그 앞에는 영양 군수가 조성한 정자와 의자가 놓여 있었다. 잠시 휴식 후 이어진 트레킹 길은 아까보다 험했다. 계단길과 데크길이 뒤섞여 있었다. 한 시간 남짓 걷는 동안 계곡 옆 큼직한 바위와 커다란 잎이 동글동글 가득 매달린 때죽나무 등 다양한 자연을 경험했다. 조심조심 내려가며 이 험준한 길을 1900년 초에 오갔을 주민들과 신돌석 장군, 의병들, 그 이전의 종교 박해를 피해 온 사람들이 잠시 스쳐갔다. 너무나 많은 이야기가 이곳에 서려 있었다. 앞서사람을 따라가니 어느새 산 밖으로 나와 있었다. 앞에 펼쳐진 얇은 개울에는 바닥이 보이는 맑은 물에 올챙이와 다슬기가 있었다. 이장님의 맑고 선량한 얼굴을 뒤로 하고 우리는 안동으로 향했다. 오랜만에 많이 움직여서 몸은 힘들었지만 정신은 한껏 고양되어 있었다. 나는 영양에 다시 가보고 싶어졌다.

(송고버섯 누룽지, 고랭지 배추, 고추죽 주문: 010-4808-3152. 이장님 성함: 유철균)

【목요캠페인】

후쿠시마 앞 바다로 핵 오염수를 방류하는 괴물

김헌주 회원(경북북부이주노동자센터장)

지금도 후쿠시마 앞 바다에는 못 생명을 위협하는 핵 오염수가 방류되고 있습니다. 인류라는 종이 지구라는 생명공동체를 망가뜨리는 괴물이라는 증거를 이보다 더 극명하게 드러내는 일이 또 있을까요?

또 누군가는 말합니다. 일본이 문제라고……. 과연 일본만의 문제일까요? 자기 나라의 이익을 위해 다른 나라의 안전은 나 몰라라 해도 된다는 극단적 국수주의 혹은 제국주의의 문제일까요? 당연하지요. 일본은 대동아 공영이라는 구호로 그걸 증명했고, 위안부 할머니들의 눈물을 짓밟으면서도 그걸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은 아닙니다. 코로나 시기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뼈저리게 확인했습니다. 인간의 존재 자체가 지구공동체를 파괴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류라는 종의 개체 수를 조절하지 않고는 이 공동체를 유지할 수 없겠다는 지구의 경고가 우리를 모두 두려움에 떨게 했음을 다시 한번 떠올리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웃 일본을 규탄하는 일에서 더 나아가 바다 생명을 대상화하고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이 반생명적 테러, 비인간적 테러에 저항하는 마음으로 신시장 네거리에 서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반성하지 않고는 결코 저 핵 오염수 테러를 막을 수 없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누군가 그렇게 말했다네요. 달걀로 바위 치기는 무모함이 아니라 절박함이라고…….



2024.5.16. 김헌주 회원

【환경문답】

Q. ‘그린워싱(Greenwashing)’은 자연을 살리는 활동을 의미할까요?

A. ‘그린워싱’은 기업들이 반환경적 속성을 감추기 위해 친환경적인 이미지로 포장하는 단어나 구절을 만들어 사용하는 행태를 나타내는 말이다. 그린워싱으로 사용되는 말은 올바른 해독이 필요하다. ‘그린워싱’하는 다음의 사례들을 살펴보자.)

〈사례1〉 ‘**사용 후 핵연료봉**’(원자력산업계 용어): 핵연료봉은 치명적이라 영구히 격리 보관해야 하지만 이 용어는 은연 중에 사용 후 핵연료에는 방사성이 남아 있지 않은 인상을 준다. 조사(照射)된 핵연료봉이란 표현이 정확하다.

〈사례2〉 ‘**바이오 고형물**’(농산업계 용어): 다이옥신, 석면, 납 등을 함유한 축산시설의 폐기물을 미국의 농기업들이 미국 환경청을 설득해 유해한 축산폐기물을 A등급 비료로 분류되는 바이오 고형물로 둔갑시켜 거름으로 밭에 투기할 수 있게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축산시설의 폐기물을 ‘바이오 고형물’로 허용해서는 안 된다.

〈사례3〉 ‘**대안에너지**’: 깨끗하고 재생이 가능한 에너지라는 의미로 사용하지만, 대안에너지 생산 과정에도 온실가스가 다량 방출하고 생산에 유해 물질들을 사용하고 있어서 생태계와 인간에게 해를 끼칠 뿐 아니라 발전시스템을 가동하기 위해 채굴하는 원료도 고갈되고 있다. 정부가 대안에너지 기업들에게 특전을 주는 것은 또 다른 무리의 자본가들을 선택함으로써 기후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그린워싱하고 있는 것이다. 화석연료 사용을 국가가 통제하면 대안에너지의 생산 원료 채굴과 정제 및 제조 과정도 국영화해야 한다. ‘깨끗한 에너지’는 없다. 더 적은 양의 에너지를 쓰는 것만이 최선이고 대안은 그것밖에 없다.

1) 돈 피츠, 「그린뉴딜, 이대로 괜찮을까」, 녹색평론 제184호, 2023 겨울호, 136~148쪽 참조

【소모임】

우리 야생화 보러 같이 갈까요

박경화 회원(환경 작가)



화창한 4월 하순, 의성 금성산에는 야생화가 한창이었다. 금성산(530m)은 그리 높지 않지만 숲속에 접어들니 마치 강원도 백두대간에 온 듯 식물들이 다양했다. 보랏빛 꽃잎이 화사하게 핀 각시붓꽃은 가장 흔히 볼 수 있고, 귀여운 으름덩굴 꽃은 오랜만에 친구를 만난 듯 반갑다. “엇, 너도 여기 있었니?”, 하얀 꽃잎을 활짝 열고 있는 큰꽃으아리도 그냥 지나칠 수가 없다.

키 큰 나무들 사이 별이 드는 곳에 낮게 핀 양지꽃, 봄맞이꽃, 그리고 분꽃나무의 꽃도 앙증맞다. 하얀 꽃들이 마치 솜털처럼 피어 있는 쇠물푸레나무 꽃은 신기했고, 하늘 향해 눈이 부실 정도로 피어나 눈길을 사로잡는 가침박달나무의 꽃은 난생 처음 보았다.

거대한 바위에 구멍이 뚫린 용문바위 아래에는 알 듯 말 듯 한 하얀 꽃이 잔뜩 피어 있었는데, 집으로 돌아와 야생화 도감을 찾아보고서야 이름을 겨우 알아냈다. 광대수염이었다. 예전엔 분명히 알았던 꽃이지만 어느새 까맣게 잊어버리고, 주섬주섬 핸드폰을 꺼내 안드로이드메다로 사라진 기억을 더듬어 보았다. 숲속의 모든 야생화는 ‘한때 알았던 꽃’이다. 고로, 지금은 ‘까맣게 잊어버린 꽃’이다. 식물 고수들은 꽃이 피지 않아도 새싹이나 잎사귀만 보고도 구별하고, 더 진정한 고수들은 겨울눈이나 바닥에 납작 엎드린 로제트를 보고도 식물을 알아본다. 그 경지까지 이르기엔 너무나 까마득하다. 아마도 이번 생에는 이를 수 없는 경지이지 않을까?

금성산 생태탐방을 함께 한 우리 동행자들은 역시 환경단체 회원들이라 야생화와 새, 나비 등에 자연의 친구들에 관심이 높았다. 서로 이름을 알려주고 검색하고 자신의 경험도 나누었다. 무심코 지나칠 수도 있지만 식물의 이름을 알게 되면 한 번 더 눈길이 가고 기억에 남아 관심과 애정이 생긴다.

‘내가 너의 이름을 불러 주었을 때 너는 비로소 나에게 와 꽃이 되었다’, 누구나 아는 유명한 이 시 구절은 야생화를 볼 때마다 떠오른다. 그리고 꽃 사진을 열심히 찍고 식물도감이나 검색 등으로 이 식물의 특징을 알게 되면 비로소 그 꽃은 내 마음 속에서 피어난다.

우리 사는 경북에도 야생화 군락지는 많다. 생태적 가치가 높은 곳도 좋고, 동네 뒷산이나 들판도 좋고, 야생화 피는 곳을 찾아가는 모임을 만들면 어떨까? 경북 북부의 야생화를 관찰하고 기록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숲 해설가나 야생화에 관심이 많은 분이 함께 해 주시면 좋겠다. 야생화 모임의 깃발을 높이 들 사람, 누구 없소?

【마음에 남는 글】

<탈핵신문> 함께 읽어요

허승규 회원(안동녹생당 공동운영위원장)



“우리는 핵발전이 차별로써 움직인다는 것을 압니다. 수도권 전역공급을 위해, 지역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우리 세대 에너지 수요를 충족시키지만, 다음 세대는 방사성 핵폐기물을 떠안게 됩니다. 가난한 이웃들은 먹고살기 위해 피폭노동도 감수하며 핵발전소 정비작업에 들어갑니다. 어떻게 이렇게 비윤리적이고, 정의롭지 못한 일을 허용할 수 있겠습니까.” - 탈핵신문 창간선언문에서 -

22대 총선에서 생태적·진보적인 기후정치는 실패했다. 생태적 한계, 불평등 해소, 공공성 강화, 보편적 평화, 핵발전 반대의 관점을 담은 기후정치는 정권심판 구도에서 주변적인 쟁점이었다. 정권의 핵발전 확대 기조에 맞서 재생에너지 확대가 필요하다는 수준에 머물렀다. 새만금과 가덕도 신공항 건설, 당장 폐쇄되는 석탄화력발전소의 정의로운 전환, ‘좌초 자산’ 투자 중심의 지역 발전, 기후위기 대응 농정대 전환, 고준위 핵폐기물 처리 시설 등의 쟁점은 드러나지 않았다. 녹색정치가 취약한 거대양당(유사정당 포함) 중심 기후정치 구도의 한계다. 기후정의를 실현하고, 성장에서 순환으로, 덜 소비하고 더 존재하는 녹색사회로의 길은 멀기만 하다.

<탈핵신문>은 2012년 6월, 창간 이래로 꾸준히 ‘탈핵’을 이야기해 왔다. ‘탈핵’은 생명과 평화, 순환과 평등, 지역과 분권을 담고 있다. 탈핵사회로 가는 길은 녹색사회로 가는 길이고, 성장의 논리에 갇힌 반쪽짜리 민주화를 넘어, 지속 가능한 사회로 가는 길이다. 환경문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시민이라면, <탈핵신문>과 함께 기성정치권과 주류언론이 주목하지 않는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자. <탈핵신문>을 통해 지금의 체제를 다르게 살펴보자. ‘환경’과 ‘경제’가 충돌한다는 과거의 논리를 넘어, ‘녹색’이 ‘민생’인 생태적으로 풍요로운 사회를 꿈꾸는 안동환경운동연합 회원이라면, <탈핵신문> 읽기를 추천한다.

【쉽터】

애기장대와 양귀비

그림·글 김은영 회원

양귀비의 계절이다. 눈을 떼지 못하게 하는 자연이 만들어낸 더 없는 화려함, 바람에 그저 부는 대로 나부끼는 연약함. 태양빛을 온몸으로 받고 빛이 통과하도록 내버려두어 꽃잎에도 빛을 느끼게 해 주는 더없이 아름다운 꽃. 이게 아름다운 자연이라고 알려주는 듯한 느낌을 준다.

반대의 의미로 애기장대는 자주 눈에 담긴다. 담벼락 밑에, 아파트 건물 아래 블록들 사이에 온몸을 비집고 뿌리, 줄기, 잎, 꽃을 다 드러내는 수십 번도 더 짓밟혔을 작은 식물이다. 공교롭게도 이 애기장대가 지금의 식물이 어떤 과정을 거쳐 여기에 존재하는지 연구하는 토대가 된 아이다. 물론 식물의 유전자 전체를 알아낸 것도, 굴광성과 호르몬도 모두 이 애기장대 덕분이다. 여전히 전세계 과학자들이 가장 많이 연구하고 있는 것도 이 식물이다. 세대도 짧고, 기르기 좋고 흔하다. 실험실에서만 보던 그 Arabidopsis가 지천에 널린 잡초란 걸 알았을 때, 그리고 그것을 길에서 만났을 때 충격이 새삼 떠오른다. 길바닥에 나앉은 애기장대 꽃길이가 3-4mm, 그 코딱지만 한 꽃과 양귀비의 화려함이 대비되는 계절이다. 서로 다른 모습으로 자연의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알려준다. 오늘은 사람들이 고개 숙여 발 밑의 애기장대의 위대함도 볼 수 있기를.



【알림】

1. 후쿠시마 핵오염수 투기반대 퇴근시간캠페인

- 매주 목 17:00~18:00 신시장네거리(구.농고네거리)
- 캠페인 참여하실 회원분께서는 사무국장(010.2864.0215)에게 연락주세요.

2. 본 소식지는 회원들의 참여로 만들어집니다. 소식지의 이름을 지어주세요.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아울러 회원님들의 소식이나 하시고 싶은 말씀을 실어드립니다. 사무국장(010.2864.0215)에게 연락주세요.

【후원 현황】 2024년 4월 15일 ~ 5월 16일

강란구 강민수 강병규 강병두 강상우 강석주 강수완 강신국 강주영 강준용 강철원 고은경 공문규 공정옥 권기상 권기춘 권기환 권명희 권미정 권영창 권오형 권용수 권준익 권해숙 권현주 권희경 금시훈 김기형 김금열 김동원 김동학 김명자 김명환 김민식 김보혜 김봉우 김분택 김상태 김새롬 김수동 김수일 김숙이 김순중 김승균 김시원 김시현 김아름 김연자 김연혁 김영훈 김옥희 김원열 김유진 김윤상 김윤진 김은복 김은숙 김은영 김은현 김은혜 김정년 김정우 김정현 김정희 김종규 김종욱 김종혁 김주년 김진옥 김창균 김철수 김춘섭 김현주 김현택 김혁배 김형민 김혜민 김혜자 김휘연 김희철 남영신 노지민 류길하 류시대 류춘우 문상필 문수미 박경순 박경화 박명남 박수성 박순우 박옥원 박종순 박진영 박찬승 박평현 박혜민 배용한 배주현 배현주 백설아 변성운 서옥림 서정림 서준교 석복희 손동정 손선영 손종열 신공주 신기선 신성일 신지은 신현순 신호철 심유성 안동훈 안솔잎 양정인 엄영애 엄지원 여명미 옥현정 왕용원 우지현 윤동희 이경란 이경원 이경자 이광섭 이규중 이대홍 이동이 이민호 이설우 이성로 이수동 이승철 이영목 이영탁 이우원 이윤희 이윤화 이재각 이정희 이종원 이 창 이철진 이태식 이해선 이형철 이희오 임경지 임덕자 임미주 임영숙 임우선 임정동 임혁재 장경자 장병직 장운석 장인완 장재모 장현국 장효정 전교탁 전영모 전재현 정민지 정복순 정숙자 정신영 정연주 정찬수 정철환 정형민 조명호 조병후 조석옥 조영준 조주리 조지용 조현석 차준섭 천수빈 최락선 최민교 최상현 최수환 최영신 최용환 최유정 최정은 최종승 최형석 추장민 피정아 한경희 한철희 한혜원 허승규 홍수만 황진용 여다야(췌)어로 글대교회공동체

▶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혹시 누락되신 회원은 연락 바랍니다.

▶ 권용호, 김종혁, 김진옥, 박진영, 석복희, 장병직, 정형민, 지은아 님, 회원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5월 가입)

▶ 김은복, 조석옥 님 회비 증액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박병재, 배영주, 오현경님 일시후원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사단법인 안동환경운동연합 후원계좌 농협 351-1218-3671-93 사단법인안동환경운동연합